



“마음으로부터 새로워지는 사람들 3: 결혼을 지키라”  
(마태복음 5:27-32)

■ 들어가는 말

내가 주로 하는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힘써 보았습니까?

1. ‘아내를 버린다’는 표현 속에서 당시 분위기가 어떠했음을 느낍니까?

=> 당시는 남성 중심의 문화가 팽배했기에 상대적으로 여성은 차별과 무시를 당하던 시대였습니다. 남성들은 별 것도 아닌 일로 트집을 잡았고 자기 아내와 쉽게 헤어지곤 했습니다. 그 속마음에는 다른 여성에 대한 욕망이 깔려 있었습니다.

2. 아내와 헤어질 때 반드시 이혼 증서를 줘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이혼 증서 없이 아내를 내보내면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 찍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따라서 이혼 증서를 주는 것은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 주어진 명령이었습니다. 설사 여인이 버려졌어도 이혼 증서가 있어야지만 다른 남자와 결혼할 권리가 주어졌습니다.

3. 그럼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이혼은 허락된 것입니까?

=> ‘짜지은 것은 나눌 수 없다’(마 19:6)에서 보듯, 성경은 결혼의 신성함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이혼을 명하신 일이 없습니다. 상대방의 허물이 드러나더라도 사랑하라,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는 왜 이혼 증서를 주라고 했을까요? 간음죄에 의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4. 오늘날은 이혼이 쉽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 상황, 성격 차이 및 기타 여러 이유들로 부부간의 혼인 약속을 깨뜨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시각을 가져야 할까요?

=> (돌아가면서 나누어 봅시다.)

5. 이혼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또 우리 주위에 부부간의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가정이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에서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 (돌아가면서 나누어 봅시다.)

■ 기 도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한 가정을 꾸리게 하심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있음에도, 부패한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으로 서로에게 상처주고 깨어지는 부부가 곳곳에 많습니다. 그로 인해 자녀 세대들이 불안과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각 가정에 덮이게 하셔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가정 안에서 사랑과 용납, 용서와 이해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초 청 합 니 다

참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이,  
상처가 있는 곳에 위로가,  
절망하는 이에게 희망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기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잘 인도하는 참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온양삼일교회입니다.

“온양삼일교회”는 당신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당신에게는 누군가로부터 칭찬을 받을만한 아름다운 삶(신앙)의 이야기가 있나요?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